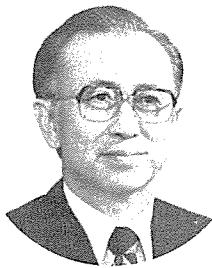


科學技術진흥정책은
 量보다 質에 優先해야



崔 相 業
 (西江大 교수·化學)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는 祖國의 先進化가 최우선의 과제라 할 것이다. 정부는 서기 2000년까지에 세계 10위권의 科學技術先進國에 도달하고 특히 선정된 분야에서는 최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科學技術의 기본 목표로 삼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科學技術의 발전은 一次的으로는 과학기술분야 사람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政府가 科學技術 진흥의 先導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汎部處의인 차원에서 과감하고 지속적인 科學技術 진흥정책을 펴나가지 않는 한 우리나라 科學技術수준을 최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政府는 우리나라가 서기 2000년에 가서는 국민총생산 2,500억불, 1인당 국민소득 5,000불선의 先進國으로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人口 1만명당 8명수준의 과학기술 연구인력을 서기 2000년까지는 人口 1만명당 30명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그중 10%에 해당하는 15,000명 정도는 국제수준급 핵심 두뇌로 집중 양성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 최상급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主供給源은 大學院 博士과정이라 할 것이므로 科學技術 수준을 先進國 10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대학원 博士과정의 강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大學院의 강화와 관련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수의 자질향상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American Council on Education」이 실시하는 大學院 평가작업에 있어서 교수의 자질을 가장 중요한 評價尺度로 삼고있는 것도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수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는 교수 개개인의 천부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매

우 중요하기 때문에 大學교수들의 연구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近年에 와서 科學技術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大學에서의 創意的인 연구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한 우리나라 科學技術이 先進國 대열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大學院을 강화함에 있어서 충분한 數의 전임교수 확보가 꼭 이루어져야 할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적은 수의 專任교수를 갖고 學士과정은 물론이고, 碩·博士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자유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도 대학의 각 學科마다 상당 수의 專任교수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러 대학에서 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시간 數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碩·博士과정의 大學院 학생수와 전임교수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된다. 전임교수에 비하여 學生數가 너무 많으면 研究活動의 탁월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數의 專任교수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초과 수당」이라는 말이 大學에서 없어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科學技術 핵심두뇌의 수요 추정은 각 大學이 어느 정도의 專任교수를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또 공공 연구기관, 大學 부설 研究所, 企業 연구소 등에서의 연구활동이 얼마 만큼 활성화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博士學位 소지자의 공급은 그 수요에 맞추어서 책정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여러 先進國에서는 博士학위를 끝낸 사람이 더한층 깊이있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碩學을 찾아서 博士後研究(Post doctorate)를 수행한 다음 大學, 연구기관, 企業

體 등으로 진출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科學技術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科學技術 핵심두뇌의 수요창출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博士後研究가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學術研究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학술활동의 國際交流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科學技術系 각 學會에 속하여 있는 개인들의 國際 學會에 참석하여 자신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당해 전문분야에서의 學術活動의 국제 교류에 힘쓰는 일이 꼭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과거에 참석한 여러 國際學術會議에서 보더라도 日本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수의 참석자가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나 혼자서 참석한 경우가 非一非再였다. 우리 학술활동의 海外協力은 앞길이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학자들이 國際會議에 참석하기 위한 비용을 國家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확대 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學術活動의 국제교류의 또하나의 중요한 과제로서 우리나라 科學技術系 學會가 당해 분야의 國際機構에 가입하여 학술활동의 國際交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런 活動을 위하여는 會費負擔金 납부, 代表과 건 등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을 國家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科學技術 핵심두뇌의 양성, 연구활동의 활성화, 학술활동의 國際交流 등 科學技術 진흥을 위하여 「科總」은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政府當局은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先進化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量보다 質」이라는 관점에서 科學技術 진흥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